

# 신비의 숲 금산공원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조성한 금산공원은 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웠는 숲이다. 마을의 풍경과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쉼터가 되고 있다.



**납읍로**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273 ~ 애월읍 납읍리 852-1(약 1.6km)

**납읍남로**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291-2 ~ 애월읍 납읍리 2491-2(약 0.9km)

**애납로**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904-7 ~ 애월읍 납읍리 2246(약 1.8km)

**곽납로**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305-1 ~ 애월읍 납읍리 2138-1(약 1.6km)

**곽지1길**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61-2 ~ 애월읍 곽지리 1575-1(약 0.4km)

**천덕로**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71 ~ 애월읍 어음리 산70-9(약 9.5km)

**버드못길**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65-1 ~ 애월읍 곽지리 411-2(약 1.4km)

**금성천남길** |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761-1 ~ 애월읍 금성리 1131-2(약 1.8km)

## 남읍로/남읍남로 | 남읍리 금산공원



금산공원

남읍리 이름을 반영한 **남읍로**는 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대표 도로이다. 남읍리는 옛날에 과납(科納)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과납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가 전해온다. 과오름 주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이 마을의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또 곽남에서 발음이 변하여서 과납이 되었다고도 한다. 어느 것이 정확한 유래인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사용하는 남읍(納邑)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제주목사가 이 마을에 들러 남읍이라고 했다는데서 유래를 찾고 있다.

남읍리의 유명한 명소는 금산공원이다. 남읍리 마을 가까이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금산공원은 **남읍남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금산공원이 만들어지게 되기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있다. 예전에 이곳에는 바위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불의 기운을 몰고 온다는 말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금산(禁山)이라 했다. 나무를 보호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에 숲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치를 상징하기 위해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錦山)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산공원은 난대림 지대로서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남읍리의 이름의 유래에서도 보듯이 이 마을은 문인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과거에 급제한 문인들도 많다고 하는데, 문인들은 금산공원을 찾아 시를 짓고 풍월을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지금은 학생들의 자연학습체험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좋은 산책로가 되고 있다.

## 애남로 | 사장물

**애남로**는 애월리와 남읍리간의 연결도로이다. 남읍사거리에서 바다방향으로 뻗어있는 **애남로**를 따라 내려가면 인근에 남읍리 선인들의 역사가 묻어있는 사장물을 볼 수 있다. 과거 남읍리는 마땅한 물이 없어 빗물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에 사람들

이 점점 늘어나자 그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에 유명한 지관이 방문하자 물이 잘 나는 자리를 찾아달라 부탁했는데 지금의 사장물 자리를 파면 물이 날 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땅을 파니 암반층이 나와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비용과 장비를 마련하여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또 다른 암반층을 만나게 되어 마을 사람들은 논의 끝에 작업을 중단하고 연못으로 만들어 단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 병사들이 활 쏘는 훈련을 했던 사장터의 지명을 따서 사장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비록 지하수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빗물을 받아 놓은 이 물은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장물

## 곽남로 | 곽지리와 과오름

곽남로는 남읍리에서 북쪽에 있는 곽지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애월읍의 해안마을로 고려시대 곽지현(郭支縣)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일대에 오랜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곽남로를 따라 곽지리로 가다보면 오른편으로 곽지리와 애월리의 경계가 되는 과오름을 지난다. 과오름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첫째를 큰오름, 둘째를 셋오름, 셋째를 말젓오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곽금8경에서는 세 봉우리를 일컬어 곽악삼태(郭岳三臺)라 칭하고 1경으로 꼽고 있다. 과오름에 오르면 곽지리에서 멀리 귀덕리까지 조망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마을의 길들이 반듯하게 나 있어 마치 바둑판같다고 말한다. 어도오름과 과오름의 산신이 곽지리에 바둑판을 놓고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래서 오름 정상에 경치는 선인기국(仙人碁局)이라는 이름으로 곽금8경 중에 7경으로 꼽히고 있다.

## 곽지1길 | 곽지과물

곽지리의 마을로 들어가면 곽지1길처럼 마을 이름을 딴 길들이 곳곳에 이어진다. 곽지1길을 따라 바닷가로 향하면 곽지리의 명소인 곽지과물해변에 이른다. 곽지리 역시 남읍리



### 곽지과물

처럼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곽지리 해안가에 솟아나던 용천수 덕분에 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곽지 사람들은 이 물을 곽지과물이라 불렀다. 이 물은 양이 많고 수질도 깨끗해 곽지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사용하던 물이었다. 수도가 마을에 들어오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곽지과물이 있는 바닷가는 오늘날 곽지과물해변으로 변했다. 해수욕장 이름을 과물해변이라 지은 것도 바로 곽지과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되면 이곳은 곽지과물해변을 방문한 사람들로 북적인다. 애월읍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곽지과물해변은 무더운 여름을 푸른 바다와 함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피서지이다. 마을 사람들은 곽지과물을 노천탕으로 만들어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 천덕로 | 열녀 김천덕(金天德)

애월읍 곽지리에서 어음리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천덕로**는 김천덕이라는 열녀의 이름을 상징하는 길이다. 곽지리 출신인 김천덕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배를 다루는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관아에서는 진상품을 배로 나르는 일을 그에게 맡겼다. 어느 날 남편은 진상품을 싣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도중에 험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김천덕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그 후로 김천덕의 미모에 반한 남자들이 김천덕과 혼인하려고 노력했지만 김천덕은 죽을 때까지 남편과의 신의를 지키며 혼자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절을 지킨 그녀를 열녀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제주를 찾았던 조선시대 문인 임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절개에 탄복하며 칭송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버드못로 | 버들못

천덕로에서 갈라지는 **버드못로**는 이 길에 있는 연못인 버들못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버들못은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불렀던 이름이다.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소나 말의 식수로 주로 사용하던 물이다. 지금은 보호동물인 맹꽂이의 서식지로 알려



져 있다. 광지리와 금성리의 빼어난 경치를 정해서 광금8경이라 했는데 버들못에 철새가 날아와 노는 모습을 유지부압(柳池浮鴨)이라 해서 여덟 번째 경치로 꼽고 있다.

## 금성천남길 | 금성천

금성천남길은 마을 안을 지나는 금성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귀덕리에서 분리되면서 금성리(錦成里)란 이름을 쓰게 되었다. 이곳은 고려시대 묘자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묘의 주인이 높은 신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금성리 주변에 군사들의 병영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럴 듯해 보인다. 금성리 마을과 어도봉을 잇는 금성천은 금성리와 귀덕리 사이를 흐르는 하천으로 한라산 서쪽에서 시작된 물길이 중산간의 마을 거쳐 금성리 바닷가까지 이어진다. 예전에는 장자천으로도 불리다가 마을 이름을 따서 금성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금성천 하류의 금성포구는 과거에는 중국이나 육지를 왕래하는 배들이 드나들었다는 이야기 전한다.